

韓國的 패션디자인에 對한 英國 패션專門家들의 認識 調査⁺

朴 惠 媛

昌原大學校 衣類學科 副教授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Korean Image Fashion Designs by U.K Fashion Specialists⁺

Park, Hye-Won

Associate Prof.,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recognition of Korean image fashion design by U.K fashion specialists. U.K is one of the important countries in design field including fashion design since 1960. For this purpose, literature research and focus individual interview research were carried.

First, through the researches precedent, it was found that a national image is related with it's design industry and what is Korean image fashion design, were studied.

Second, for individual interviews to 13 U.K fashion specialists, who are teaching and researching in University that has postgraduate course over M.A and had industrial experiences from 7years to 22years, were progressed using open questions and visual image stimulus.

The open questions were consisted with four parts : personal educational and industrial background, recognitions about oriental fashion, recognitions about Korean image and Korean fashion design before seeing the visual stimulus, recognition about Korean image fashion design and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after seeing the visual stimulu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12 U.K specialists have recognized 'oriental fashion' is one of important fashion trends now a days. Japan and Japanese designers are recognized as a represented nation and designer in oriental fashion by them. Two of the specialists referred to need changing the term 'oriental' because the term has been used in the sights of western from colonial age and Japanese is not included the oriental any more.

Secondly, 11 interviews have recognized nothing about the Korean national image some of them has negative image due to political situation in Korean Peninsula. However 2 interviews who had been Korea before has positive image. In the questions about Korean fashion and Korean fashion designers, 10 of 13 interviews have nothing and negative recognitions. So it was founded that Korean fashion design was recognized as a lower level by U. K. fashion specialists.

Thirdly, in the questions about Korean fashion image and the design characteristics of Korean fashion after seeing the visual stimulus, the response was represented two directions. One is about over

⁺ 본 연구는 2003년도 창원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해 수행되었음.

decorative image through ethnic design and the other is about simple image differ from Japanese. The 13 interviews felt the Korean Image fashion design such like traditional, decorative, opulent, flat cutting, fresh proportion, loose, layering, natural, simplicity, complicate, adventure, easy, stylish, soft, feminine, young image, adult sexy image.

The images were analyzed five image groups : adult sexy image, adult ethnic image, natural image, young avant-garde image, young simple casual image.

No one preferred the adult sexy image, adult ethnic image and natural image. However 10 interviews preferred young avant-garde group and 13 interviews preferred the young simple casual image. So this group can be understood and useful informed as one of competitive power in global fashion industry.

Key words: Korean image(한국적 이미지), oriental(동양풍), fashion design(패션 디자인), recognition(인식), focused interview(심층면접), U. K. fashion specialist(영국 패션 전문가)

I 서론

1990년대 이후 활발히 추진되어 온 한국 패션의 세계화 공략은 많은 디자이너들의 해외 컬렉션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세계 패션의 중심지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산·학·관 모두가 한국패션의 세계화 진출에 더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패션디자인 산업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문화적 첨단 고부가가치 특성 때문일 것이다.

2004년도 산업자원부의 섬유패션산업 비전을 보면 2010년까지 섬유수출 300억불을 달성하여 세계 3위의 섬유수출 강국으로 성장하겠다는 의지가 표명되고 있다. 이를 위해 패션 의류의 생산비중을 2003년 7%에서 2007년에는 15%, 2012년에는 섬유수출의 30%에 이르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¹⁾. 또한 정부는 한국 섬유산업의 분야별 진단에 있어 패션부분은 경쟁력이 있다고 분석하고 단지 차별화의 문제에 있어 다소 약하다고 분석하였다²⁾. 패션디자인 산업의 세계화 추진에 대한 인식과 전략방안에 대한 모색은 이제 산·학·관 모두가 공감하고 절실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패션 디자인 산업의 세계화 추진을 위해 정부는 서울 컬렉션을 세계 5대 컬렉션으로 발전시키고 해외홍보, 바이어 유치 등을 위한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경쟁력 있는 디자인의 개발을 위해 세계인들이 함께 느낄 수 있는 한국 패션디자인의 정체성의 확립이 최우선시 되어야할 것이다.

패션 연구 분야에서는 한국 패션의 경쟁력 있는 정

체성이 무엇인지 다각적으로 연구 분석해야 할 것이며 한국의 디자인이 해외에서 환영받고 고가의 상품으로 판매하여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우리의 디자인에 대한 해외 현지인들의 인식을 조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현실을 정확히 알아내는 것은 성공적 미래를 향한 방향 수정과 전략을 세우는데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생각하고 인정하는 우리의 정체성이 과연 세계인들에게도 같은 의미로 작용하는지 그들의 인식을 알아내는 작업은 세계 속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어내는데 기본이 될 수 있다.

그동안 패션디자인 연구에서는 전통적 디자인의 활용을 통해 다른 나라와 차별화된 우리 고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데 많은 심혈을 기울여왔다. 한국적 디자인과 관련된 연구는 대개의 경우 전통 복식의 구체적인 아이템의 차용이나, 형태, 실루엣, 색채 및 문양과 관련된 1차적 활용을 분석하는데 치중하고 시각자료의 분석이나 문헌연구차원에서 진행되어 왔다. 또한 감성적 차원의 연구에 있어서는 외국인들의 한국전통 문양에 대한 인식을 연구하였으나 독립된 문양차원의 연구이거나 한국 전통복식의 선호에 관련된 것이어서 현대 패션 디자인에서 나타나는 전통적 이미지에 대한 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고찰하고 심도 있게 평가하는 기회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한국적 이미지가 내적 외적으로 표현된 패션디자인(이하 한국적 패션디자인이라 함)을 분석 정리하고 이를 시각 자

료화하여 해외전문가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해외전문가 선정은 영국 패션 전문가들로 한정하였다. 영국은 과거의 진부한 이미지를 벗고 세계 디자인 각 영역에서 신세대 디자이너들의 활약이 큰 나라로 특히 1990년대에 세계유명 패션하우스의 수석디자이너가 영국출신자들로 대체되었고 많은 해외 유학생들이 영국의 창조적 교육을 받고자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새롭게 디자인분야의 중심지로 떠오르는 영국 패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적 패션디자인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것은 그 동안 일본, 미국 중심의 패션 디자인 교육과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 보다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그 동안 진행되었던 국내 중심의 연구 결과와 함께 한국적 패션디자인이 갖고 있는 경쟁력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전략적으로 내세울 한국 패션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에 유용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국가 이미지와 패션디자인 산업

이미지는 '상(像), 영상, 상징, 화신' 등과 같이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으나, 주로 마음속에 새겨진 상, 즉 '심상(心象)'이라는 의미로 정의한다. 말하자면 사람들이 어떤 사물이나 현상 등을 생각할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인상이 곧 이미지이다. 이러한 이미지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한 나라의 문제로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특히 국가의 이미지는 그 나라 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경원(2003)은 이러한 국가 이미지의 중요성은 디자인 분야에서는 절실한 것으로 지적하면서 한 국가의 이미지 요인을 '거시적(macro) / 미시적(micro)', '가시적(visible) / 비가시적(invisible)' 요인으로 구분한다. 거시적 영향요인은 한 국가의 통치체제와 관련되는 요인들로서 통치 이념, 정치 및 경제체제, 사회제도 등은 물론 국력이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등을 말하며 미시적 요인은 한 국가 구성원들의 용모, 생활양식, 전통, 관습 등과 같은 것이다. 가시적

인 요인은 눈으로 직접보고 확인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다수 국민들의 용모, 그 나라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이나 산업제품의 디자인, 예술품 등을 꼽을 수 있다. 비가시적 요인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국가 이미지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치체제, 국민성, 역사 등과 같은 것을 의미 한다³⁾.

그 동안 디자인 산업 관련 연구에서는 상품 개발을 위한 이미지 연구나 색채 이미지, 전통 이미지 등에 관한 선행 연구가 있었다⁴⁾. 국가의 이미지는 상품 고부가가치성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며 반대로 좋은 상품에 의해 그 국가의 이미지가 높이 인식되기도 한다. 따라서 우수한 가치 있는 디자인 개발은 한 국가를 살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산업인 것이다.

한 예로 1997년 토니 블레어(Tony Blair) 총리는 영국이 세계에 자랑하는 록 음악이 영국경제에 기여하는 막대한 공헌을 예로 들면서 영국의 국가 이미지를 바꿔야 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가디언(Guardian)지에 기고한 글에서도 블레어 총리는 산업혁명의 발상지였던 과거의 영국은 '세계의 공장(Workshop of the World)'이었지만 이제 새로운 영국은 '세계의 디자인 공장(Design Workshop of the World)'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은 디자인 산업에서 매년 1백 20억 파운드(17조 4천억 원)를 벌어들이며, 30만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영국이라는 나라의 브랜드 이미지 자체를 바꾸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젊은 영국 만들기에 박차를 가했다⁵⁾.

우리나라의 경우 1999년 산업자원부가 국제경영전략연구원을 통해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 3개국에서 한국의 국가 이미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아직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미지는 전쟁/분단 상황/분쟁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경제발전이나 미래 성장가능성에는 인정을 받고 있으나 특징이 없는 나라로 인식되고 있다⁶⁾.

패션디자인 분야에서도 이러한 이미지 경쟁은 예외가 아니다. 한 나라의 패션 상품은 그 나라의 이미지가 결합되어 1달러짜리 상품이 될 수도 있고 1000달러의 가치를 가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각 나라들은 그 나라의 이미지 가치를 패션을 통해 상승시키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 각국은 자국만의 특별한 차별화를

내세워 패션산업에 이용하기도 하고 또는 패션 상품의 성공을 통해 국가의 이미지를 올리기도 한다.

세계화를 지향하는 것은 세계의 소비자들이 공감하고 만족하는 보편적 디자인을 의미한다. 따라서 세계인들이 공감하고 선호하고 만족하는 디자인의 개발에는 한 나라의 문화적, 전통적 혹은 기술적 가치가 충분히 평가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한 나라의 높은 국가 이미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패션 선진국들의 경우 각 국가별로 패션의 미적, 디자인적 특성은 이미 정형화되고 보편화되어 세계적으로 인식되어 있다. 또한 이를 위해 나름대로의 굳건한 이미지를 확보에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하고 있다.

A. Fiore와 P. Kimle는 프랑스, 이태리, 미국, 일본의 디자이너 작품을 통해 각 나라마다의 미적 특성을 비교하였다⁷⁾. 프랑스는 세련된 최상의 이미지로 정교한 재단과 신체를 의식하는 디자인 특성이 있었고 이태리는 온화하며 부드러운 피트성과 색채의 특성과 함께 모피 가죽의 명품 나라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은 단순한 기능미와 함께 도시적 세련됨과 스포츠웨어의 특성이 있는 나라로 보았다. 일본은 특이하고 복합적이고 화려하고 예술적 실험경향이 그 특성이라고 하였다. 우리나라도 1990년대 이후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노력이 있었으나 아직까지 그 성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양현미(2000)는 상대방의 기대를 고려하는 이미지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⁸⁾하면서 서구인의 충족되지 못한 욕망을 치유하는 문화적 이미지로 승화시킬 수 있는 매개가 우리에게 분명하지 않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우현 교수 선생이 우리나라 고유한 미적 특질로 규명했던 '무기교의 기교'가 우리나라 문화적 이미지를 세계화 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자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식정보화시대로 대변되는 21세기는 개인의 다양성이 강조되고 정보취득과 소비수준이 점점 고급화된다. 이런 변화에서는 가격경쟁력 중심의 대량생산체제가 살아남기 힘든 것은 분명하다. 전통적인 디자인을 그대로 활용한다고 해서 국제시장에서 호소력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전통의 재해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해석 작업을 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이 바로 상품을 사는 해외소비자 일 것이다.

최현수는 한국적 이미지라는 상투적 표현들, 예를 들자면 산수화, 고구려벽화 등을 무작위로 병치시킨 것이 아니며 한 민족 고유의 전통성을 가진 문화적 원형은 그 사회의 적응과 반복의 과정을 통해 지역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세계적인 보편성을 가진 존재로 확산되어야 함⁹⁾을 강조하였다.

결국 한 나라의 이미지는 곧 총체적인 국가 산업경쟁력과 직결되는 현실 속에서 한국은 국가 이미지가 취약하여 올바르게 평가받지 못한다고 말한 프랑스의 문화비평가 기 소르망(Guy Sorman)의 지적¹⁰⁾은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이며 패션 디자인 산업에서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우리 패션산업계에는 프랑스나, 독일, 일본, 미국, 영국, 이태리 같은 고급 국가 이미지가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오히려 패션디자인 산업의 성공을 통해 한국 디자인의 우수성을 알리고 이로 말미암아 국가의 이미지도 높일 수 있을 것임엔 분명하다. 따라서 한국 패션디자인의 성공은 국가적 차원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해야 하며 패션산업 분야의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이미지와 한국 패션디자인에 대한 해외인들의 인식현황에 대한 조사연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2. 한국적 패션 디자인에 대한 선행 연구

1990년대에 들어 패션의 세계화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한국 패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로서 한국적 전통복식의 활용이나 한국적 패션 디자인에 대한 분석과 방안제시가 있었다.

김인경은 한국적 디자인은 '전통성'과 '현대화'의 충돌 같은 갈등적 요인에서 이 두 과제를 어떻게 서로 수용, 융화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를 지적하였다¹¹⁾. 현대에 있어 '한국적'이라는 개념은 옛것의 형식적인 재현이나 모방이 아니라 순수한 한국의 정신문화전통과 현대화 요구의 충돌을 직접 체험한 역사적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것으로 다원적인 여러 원리와 법칙에 의해서 변모되듯이 한국적이라는 개념 또한 한 두 마디의 어휘로 정의를 시도하기 보다는 시대별, 지역별, 분야별 등으로 나누어 각 양상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규명과 정의가 시도되어야 한다¹²⁾고 하였다.

조규화는 한국 현대패션에 표현되는 미의식을 비구축적 디자인, 소재의 평면적 효과, 양극화의 색채, 과장된 디자인으로 지적함으로써 한국 현대 패션에 전통적 의식이 내제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깊이 연구해야 한다고 하였다³⁾.

금기숙은 현대 패션 디자인에 전통적 요소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고찰하는 연구¹⁴⁾를 통해 전통복식 요소는 새로움을 추구하는 창작과정에서 디자인의 영감으로 활용할 가치가 높다고 평하였다.

한편 박은주, 은영자는 서구 패션에 있어 중국, 일본, 인도 등의 전통적 요소가 오리엔탈리즘으로 인식되어 빈번하게 도입되어 오고 있는 것에 반해 한국의 전통적 요소는 잘 알려져 있지도 않고 그 도입 정도도 미비한 실정을 논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로 들어서면서 한국 디자이너들의 국제무대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세계 속에 한국적 조형미를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¹⁵⁾. 특히 치마와 저고리로 구성되는 여성복식의 상박하후(上薄下厚) 형태와 자연스런 실루엣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곡선의 아름다움은 현대 패션에서 한국 전통미를 표현하기 위해 가장 많이 활용되는 요소이며 이외에도 저고리의 여밈, 깃의 비대칭, 치마의 유동성이 나타나는 선(線)과 주름도 독특한 조형미¹⁶⁾로 언급 하였다.

신경섭, 박혜원은 직접적으로 파리에 진출한 한국 디자이너들의 현황과 작품의 특성을 컬렉션지를 통한 자료로 분석하려는 시도¹⁷⁾를 하였고 공미선, 채금석은 세계시장을 위한 한국적 패션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를 위해 주요 오트 쿠튀르 컬렉션과 프레타 포르테 컬렉션의 동양적 작품을 분석하여 한국패션의 전통성과 관련된 정체성을 찾고자 하였다¹⁸⁾. 특히 독특한 한국 고유의 문화, 이미지의 표현개발에 더욱 힘써야 하며 지나친 전통성의 강조보다는 상품성향의 패션이 요구된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¹⁹⁾.

이밖에 윤보영, 배수정은 한국과 일본의 전통 미의식이 현대 패션에 반영된 것을 비교한 연구²⁰⁾를 통해 우리의 미적 특성을 소박미, 질박미, 무기교의 기교, 벽사미, 길상의 미, 자유분방함의 미로 분석하였다. 장수경²¹⁾은 미국대학생이 인지하는 전통문양의 감성이미지를 연구하였고 최은경, 심화진은 내외국 일반인을 대상으

로 전통 복식의 이미지의 선호도를 조사한 연구²²⁾를 하였다. 국제화 추세와 유통개방 및 소비자의 고감각화에 따라 세계패션시장에 대비한 경쟁력이 중요시되면서 디자인의 차별화의 방법으로 한국의 전통 이미지와 전통 디자인 요소를 활용한 한국적 이미지의 패션디자인이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연구도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한편 선행 연구를 통해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개념과 범위는 다음과 같이 파악할 수 있었다.

첫째 형태적으로 전통 복식의 아이템인 치마, 바지, 저고리, 포, 당의 등의 형태를 차용한 디자인, 둘째 평면적 재단을 통한 풍성한 여유미를 통해 한복의 실루엣을 나타내는 디자인, 셋째 입는 착장법이나 여밈 등을 통해 전통 복식의 비대칭적 특성과 고유한 프로포션의 효과를 나타내는 디자인, 넷째 전통 소재나 소재의 질감 혹은 천연 염색법을 활용하여 한국적인 이미지를 표현한 디자인 다섯째, 자수, 매듭, 깨끼 바느질, 조각보 기법, 누비 등 고유의 장식 기법 및 바느질 기법을 활용한 디자인 등이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1).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심층면접과 자극물 구성

본 연구는 한국적 패션디자인에 대한 영국 패션전문가들의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한국적 패션디자인에 대한 해외 전문가들의 고찰을 심도 있게 조사 해보고자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정분야의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연구의 목적을 이룰 수 있으므로 일대일 심층면접법으로 수행하였다. 객관성 측면에서 양적조사방법보다 다소 결여될 수 있지만 대상자의 생각이나 의견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특히 패션 디자인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숫자적 양적조사보다는 질적연구를 통한 언어적 조사 연구가 보다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Locker(1993)는 질적 양적 방법의 주요한 차이를 정보가 기록된 말인지 숫자인지의 문제라고 하였다²³⁾. 정보가 기록된 언어로 될 경우 신뢰도를 높이는 노력

<표 1> 전통복식의 활용이나 한국적 패션디자인에 대한 선행연구와 내용

연구자	연구내용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범위
김인경(1995)	- 전통성과 현대화의 갈등적 요소를 해결하는 것이 경쟁력 강화의 중요한 과제임을 지적 - 한국적이란 옛것의 재현이나 모방이 아님 - 시대별, 지역별, 분야별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규명과 정의가 시도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 복식의 아이템인 치마, 바지, 저고리, 포, 당의 등의 형태를 차용한 디자인 · 평면적 재단을 통한 풍성한 여유미를 통해 한복의 실루엣을 나타내는 디자인 · 입는 착장법이나 여밈 등을 통해 전통 복식의 비대칭적 특성과 고유한 프로포션의 효과를 나타내는 디자인 · 전통 소재나 소재의 질감 혹은 천연 염색법을 활용하여 한국적인 이미지를 표현한 디자인 · 자수, 매듭, 깨끼 바느질, 조각보 기법, 누비 등 고유의 장식 기법 및 바느질 기법을 활용한 디자인
조규화(1997)	한국의 현대 패션에는 전통적 의식이 깊이 내제되어 있음을 확인: 비구축적 디자인, 소재의 평면적 효과, 앙극화의 색채, 과장된 디자인 등	
금기숙(1999)	전통복식의 활용을 조사분석함 : 조선시대의 복식에 한정되어 있음. 여성복에 주로 활용되고 있음. 특정 품목(재킷, 코트, 원피스, 투피스)에 한정되어 있음. 자연색과 원색사용. 전통소재를 그대로 사용하여 한정된 이미지	
박은주, 은영자(1999)	치마, 저고리로 구성된 여성복식의 상박하후 형태와 자연스런 실루엣의 곡선미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음. 저고리의 여밈, 깃의 비대칭, 치마의 유동성, 선과 주름의 미가 대표적	
윤보연, 배수정(2001)	소박미, 질박미, 무기교의 기교, 벽사미, 길상의 미, 자유분방함의 미로 분석	
신경섭, 박혜원(2001)	파리에 진출한 한국디자이너들의 작품특성을 분석하여 한국적 모티브를 발견함-심플 라인, 내추럴 컬러, 전통적 형태의 직접적 표현	
장수경(2002)	미국대학생이 인지하는 전통복식의 이미지 선호도 조사	
공미선, 채금석(2004)	유럽의 오트 쿠튀르와 프레타 포르테의 작품분석을 통해 한국적 패션디자인은 독특한 한국고유의 문화, 이미지의 표현 개발이 필요함. 민속적 형태의 재현보다 디테일이나 트리밍을 응용해야함. 소재개발이 필요. 전통적 색채조화는 덜 상	
최은경, 심화진(2004)	품적임을 연구 내외국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통복식의 이미지 선호도를 조사 분석	

이 요구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심층면접 당시의 사용된 말을 녹음하는 동시에 면접자의 태도, 몸짓, 표정, 언어의 강약을 통한 적극성 등을 관찰하고 기록함으로써 단순한 언어 면접의 오류를 최대한 줄이고자 하였다.

또한 패션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국적 패션디자인을 제시하고 디자인에 대한 견해와 사고를 이끌어 내기 위해 시각자극물을 면접단계 전에 구성 하였다. 시각자극물은 국내에서 발간된 패션 정보지 중 보그 코

리아(Vogue Korea), 엘르 코리아(Elle Korea)를 중심으로 2000년-2002년도까지를 조사하여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기준(형태, 소재, 착장법, 기법, 무늬 등)에 의해 한국적 이미지가 표현되는 작품으로 판단된 총 298장의 패션 사진을 수집하였다. 평가단은 연구자를 포함하여 학부와 대학원에서 패션디자인을 전공한 석사급 이상의 5명으로 구성하여 2002년 12월부터 2003년1월까지 사진을 평가하고 수집하였다.

수집된 사진 298장중에는 총 25명의 국내 디자이너

들의 작품이 선택되었고 특정한 디자이너의 영향력이 연구에 미치지 않도록 하기위해 최근 작품을 위주로 디자이너 1명당 3작품으로 제한하였다. 또한 신체의 일부분만이 나오거나 배경이나 다른 이미지가 강조된 사진은 제외하여 총 75장의 시각 자극물을 스캔 받고 인쇄한 후 중간명도의 회색 8절 색지에 붙여 구성하였다.

2. 면접대상자 및 기간

면접대상자는 현재 영국에서 패션분야 석사이상의 학위 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대학교에서 패션분야를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는 교수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대상자들은 영국 및 유럽, 그리고 미국에서 정규 패션교육을 이수하고 석사학위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 실제 패션 디자인 산업에서 다년간 종사했던 경험이 있으며 현재 대학의 패션분야에서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는 자들을 목적포집 하였다.

면접기간은 2003년 9월부터 12월까지 총 13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면접을 하였다. 인터뷰 대상자에 대한 정보는 각 대학 홈페이지에서 입수하고 개인별로 이메일을 발송하여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알려 면접 승낙과 협조를 구했다. 총 42명에게 이메일이 발송되었고 그 중 면접허락을 한 13명을 최종적으로 심층면접을 하였다. 면접대상자 각각에게 사전 약속을 하여 대상자가 편안하게 생각하는 시간대와 장소를 정해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고 일대일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시간은 1시간 10분에서 1시간 40분까지 소요되었다.

3. 면접내용

면접에 앞서 면접대상자들에게 면접의 목적을 알리고 녹음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한 후 나이, 면접자의 세부전공, 교육배경 및 실무경험 등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하였다. 주제에 관한 질문은 "한국 패션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본 적이 있는가?"와 같이 대상자의 경험을 질문하여 쉽게 접근하였다. 즉 면접대상자들이 자극물 제시 이전에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한국 패션디자인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질문으로 시작하였다. 특

히 도입부에서는 한국 패션 디자인에 대해 자연스럽게 질문을 연결시키기 위해 동양풍 디자인에 대한 견해를 먼저 질문하였다. 동양풍 디자인과 한국적 디자인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에 대한 질문에는 자극물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으로 한국적 패션 디자인에 대한 질문에는 준비된 시각자극물을 제시하여 충분히 보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한 후 질문을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2>과 같다.

4. 분석 과정

면접 내용은 기록과 녹음으로 자료화 하였다. 먼저 녹음된 테이프는 연구보조원(원어민)에 의해 모두 글로 옮겨 전개자료(expanded account)를 만들고 녹음테이프와 글을 통해 면접대상자가 응답한 내용과 사용한 단어와 강조한 어투 등을 추출하였다. 전개자료의 분석은 연구자와 보조연구자 1명이 각각 읽고 동양풍 패션에 대한 평가 차원과 한국적 이미지 패션디자인에 대한 평가 차원에 관련된 내용을 추출하였다.

연구자가 면접현장에서 기록한 자료(condensed account: 가령 부정적 태도나 손짓, 적극적 자세, 만족스런 표정 등)와 함께 녹음 내용을 반복 청취하면서 전개자료를 확인하였다.

또한 대상자가 면접시에 지적했던 자극물의 번호를 기록정리하고 사용한 언어를 비교 분석하여 응답 내용을 질문 구성기준에 따라 정리하였고 면접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이미지별 차이는 그룹화 시켜 연구자와 대학원 석사이상 보조연구자 3명이 면접대상자들이 사용한 언어 중 대표성을 띤다고 판단된 언어로 이미지 이름을 명명하였다.

이상의 연구 방법, 절차 및 분석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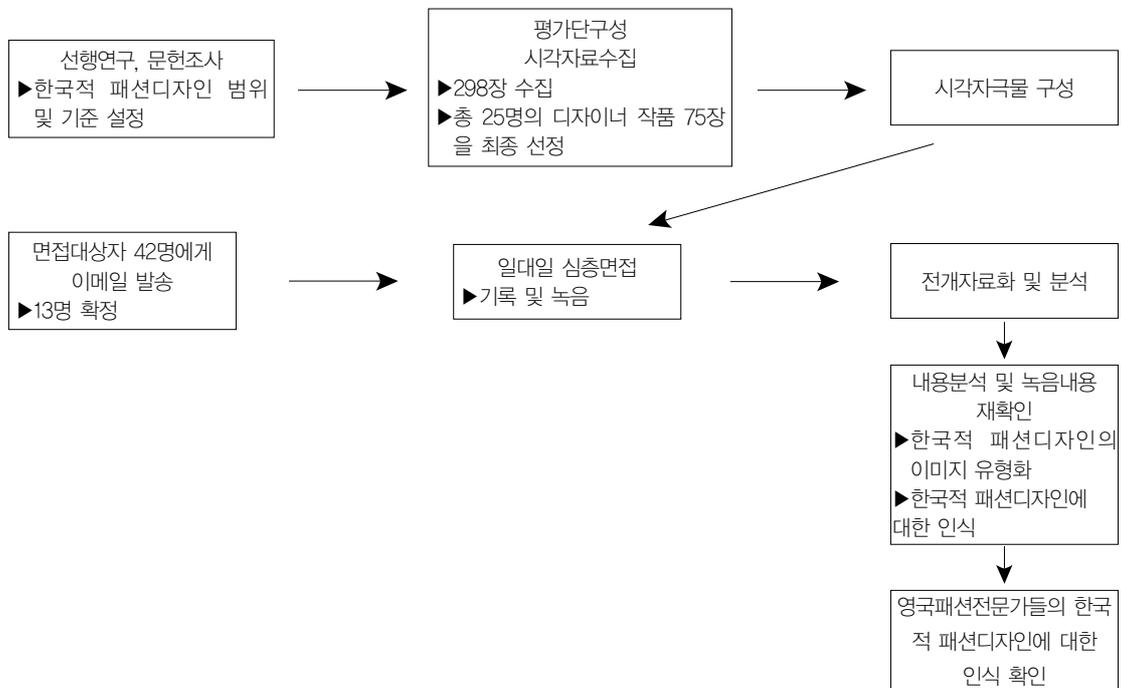
IV. 분석 결과

분석 결과는 표로 정리할 수 있는 질문의 내용들은 표로 정리하였고 면접대상자의 응답 내용 중 정확한 의미를 전달해야 하는 경우엔 원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표 2> 면접질문 구성 및 내용

유형	질문 분야	질문 내용	시간
Opening Question	인구통계학적 질문 및 패션분야 경력	· 연령, 성별, 직위 · 학력, 산업체 경력, 교육 경력, 전공세부분야 · 한국방문 경험	5-6분
Introduction & Transition Question	동양패션에 대한 인식	· 동양풍 패션이 최근 유행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견해 · 동양풍 패션의 이미지에 대한 인식 · 동양풍 패션의 대표적 나라 · 대표적 디자이너	10-15분
Key Question	한국적 이미지 패션 디자인에 대한 인식과 평가	· 한국의 첫 이미지 · 한국 패션과 한국 패션 디자이너에 대한 사전 인지 (자극물제시) · 한국적 이미지 패션 디자인을 보고 느낀 전반적인 이미지 · 한국적 이미지 패션디자인의 구체적 특성을 설명 (실루엣, 컬러, 디자인, 소재, 스타일링 등등) · 이미지별의 그룹화 · 선호 디자인과 그 이유 · 한국적 패션 디자인이 중국 일본과 다른점	40-70분
Ending Question	감사인사와 추가확인	· 인터뷰의 내용과 활용에 대해 요약 · 추가 할 내용이 더 있는지 확인 · 한국패션산업 발전을 위한 조언	4-5분

<표 3> 연구 흐름도



분석하였고 응답 내용이 매우 간단하거나 특별히 언어적 뉘앙스의 차이가 없다고 판단된 부분은 모두 한글로 표현하였다.

1. 면접대상자의 특성

면접대상자들은 현재 영국 내 5개 대학의 13명의 교수들이다. 이들 모두는 산학협동 교육과 연구가 강조되는 영국교육의 특성상 현재 산업체에서 직간접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다. 13명 중 남성은 3명이었고 여성은 10명이며 모든 대상자가 적게는 7년에서 많게는 22년의 업체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패션 디자이너, 니트 디자이너, 패션 업체 경영, 리테일러,

직물 디자이너, 정보 분석가, 패션평론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교육경력은 9년에서 30년까지였으며 대개의 경우 파트타임 경력을 함께 포함하여 연령에 비해 교육경력이 다소 많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10명이 현재 대학에서 책임자의 위치에 있었으며 이들 중 2명은 한국 방문의 경험이 있는 자들이었다(표 4).

2. 동양풍 패션에 대한 인식

1) 동양풍 패션의 유행현상에 대한 인식.

“동양풍의 패션이 최근 유행이라고 생각하는가?”의 질문에 13명의 대상자중 12명이 그렇다고 대답했고 1

<표 4> 면접대상자의 특성

이름(가명)	특성	성별	나이	산업체 경력	교육경력	현재지위	한국방문 경험
Helen		여	55	패션 디자이너 10년	30년	Senior Tutor Womenswear	무
Robert		남	53	패션디자이너/패션업체경영 20년	19년	Dean of Fashion School	무
Sally		여	50	니트디자이너/니트비즈니스/패션연구가 15년	18년	Course Director Postgraduate Fashion Studies	무
Ellen		여	48	수석디자이너/해외바이어/리테일러 22년	8년	Course Leader Fashion Business	1회
Merry		여	39	패션 디자이너 14년	11년	Lecturer fashion Design	무
Jane		여	48	패션 디자이너/패션경영 16년	20년	Program Leader Fashion Design BA	무
David		남	52	직물디자인업체 17년	12년	Program Leader Textile Management BA	무
Susan		여	54	패션디자이너 22년	10년	Program Leader Graduate Studies	무
Cathy		여	52	패션디자이너(London, Paris, New York, Milan) 15년	16년	Head of Fashion School	무
William		남	40	직물디자이너/리테일러 7년	9년	Course Leader Fashion Textile Design	5회
Eve		여	49	리테일러/패션정보분석가 15년	12년	Course Leader Fashion Marketing & Communication	무
Amy		여	53	자수전문가(샤벨, 미소니) 15년	22년	Senior Lecturer Fashion Textile Design	무
Jeanny		여	54	니트디자이너/패션평론 (Elle, Cosmo) 13년	29년	Program Leader Graduate Studies	무

명은 부정적 대답을 하였다. 긍정적인 대답을 한 12명 중 4명은 동양풍의 유행현상은 매우 중요하고 그 영향력이 대단히 크다고 응답하여 동양풍 패션의 세계 유행에 미치는 역할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

"It's very big trend nowadays ... (Merry)."

"It obviously has been a trend ... very strong influences ... (Susan)"

"... have a large influence ... (Amy)"

"It has been quite fashionable (Jeanny)".

긍정적인 대답을 한 나머지 8명의 경우에는 동양풍의 유행의 이유에 대해 '유행의 주기로 발생하는 하나의 현상 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라고 지적하거나 디자이너들이 영감을 찾고 세계화에 따른 다른 지역에 대한 관심에 의해 일어나는 경향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었다.

"... it comes around every 5-6 years in the same way that other trend ... I don't think it's any more than that ... it's a cyclical process ... it comes and goes ..." (Robert)

"... Yes I think it is ... If you look at it from the West, we are getting more of perspective now of Oriental fashion ... the globalization of fashion industry is making us much more aware ..." (Ellen)

"There's been awareness and globalization of the industry makes us more aware now of fashion development and costume from different areas of the world. I suppose there's been a much higher demand in the 10 years" (Sally)

"... it keeps resurfacing as fashion trend as fashion cycles ..." (Eve)

한편 동양풍의 유행은 '현실도피의 필요성 때문일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으며 '오리엔탈의 영향은 일부 분일 뿐이고 그 영향력도 그다지 크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possibly because of a need for escapism ..." (Helen)

"there are few but its quit small ..." (Ellen)

동양풍 패션의 유행과 영향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 응답을 하였고 이러한 흐름은 동양이란 곳이 서구인들에게 분명 중요한 지역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러나 응답과정에서 '오리엔탈'이란 용어의 사용에 대한 수정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It obviously has been a trend and it has been a developing trend for the last 12years at least ..."

"I think it's a very funny word 'oriental' because I now that from academic studies, the words is not very well regarded, its very general term. It's also what I would call a lazy term because the differences of influences between Chinese, Japanese and even Korean are all quite different and to call them all 'oriental'. I think this is one of the problems with the fashion industry" (Susan)

이처럼 동양풍 패션을 하나의 중요한 트렌드로 보는 인식에서는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동양 패션이 각각 중요한 개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양풍이란 하나의 단어로 몰개성화 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최근의 이러한 인식 경향의 대두는 한국 패션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알릴 수 있는 적절한 시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동양풍 패션의 대표적 국가와 대표적 디자이너에 대한 인식

"동양풍 패션이라고 할 때 떠오르는 나라는 어느 나라인지?"에 대해서 응답자 13명 모두가 일본을 첫 번째로 꼽았다. 또한 일본 디자이너들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는 견해도 일치했다. 이밖에 중국이 두 번째로 많이 지적되었고(4명) 인도를 언급한 경우(1명) 있었고 한국을 포함시켜 일본과 중국, 인도를 함께 응답을 한 경우는 1명이었다.

"중국과 일본이다. 일본은 선두주자이고 이제 곧 중국이 온다" (Cathy)

"명백히 일본과 중국이다" (Susan)

"특히 중국의 청삼의 경우는 타이복식이나 베트남 복식문화와 강하게 결합되어 있어 그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Eve)

"일본은 스트리트 문화를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거리 문화는 음악과 영향관계가 깊으며 일반적으로 소비자 마케팅과 밀접하다. 이점을 잘 활용하는 것 같다." (Jane)

“일본, 한국, 그리고 최근의 중국입니다 또 중요한 자료의 근원으로서 인도도 포함시킬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명백한 사실은 일본 라벨이라고 봅니다.”(Helen)

특히 Sally는 ‘일본은 이제 오리엔탈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 점은 앞서 Susan이 지적한 현대 패션에서의 오리엔탈이란 용어 사용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과 연계 시켜 볼 때 최근 유럽의 전문가들의 입장이 동양풍이란 의미와 인식에 있어 변화가 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본과 중국이다. 개인적으로 비비안 탱(Vivienne Tang)에, 상하이 탱이라는 브랜드 ... 관심이 있다. 국제적인 범위에서 만들어지는 ... 더 소규모의 디자이너로는 카이쿠그미가 있다. 때때로 일본은 이제 오리엔탈이란 용어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제 좀 더 발전적인 용어로 분리되어짐을 알고 있다. ... 지난 30년간 일본은 중요한 세명의 디자이너들이 파리에서 중심적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Sally)

이러한 응답에서 첫째 일본 패션은 세계패션의 중심으로 뿌리를 이미 깊이 내렸다는 사실과 둘째 ‘오리엔탈’이란 의미는 주변적 즉, 중심에서 벗어난 지역의 의미로 패션의 아웃 사이더 국가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정학적으로 일본은 분명 아시아 국가이지만 이제는 이미 패션의 세계 중심으로 역할을 하고 있기에 영국의 패션 전문가들 중에는 일본을 오리엔탈에 더 이상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한편 동양풍 패션의 대표 디자이너로는 모두 일본 디자이너를 떠올렸다. 이는 공미선, 채금석의 연구와²⁴⁾ 유사한 결과임을 알 수 있었다.

응답자들의 응답태도에 있어서는 일본 디자이너들에 대한 설명에는 매우 적극적이고 활기 있게 대답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일본 디자이너들에 대한 평가는 매우 긍정적인데 동서양을 절묘하게 조화하여 퓨전을 만들었기 때문이며 그들의 영향력은 매우 큰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Issey Miyake, Comme des Garçon, Watanabe, that are very established because they’ve produced a kind of fusion between Eastern and Western style. So I think in that sense there are a

progress of designs, particularly from Japan who’ve made quite an impact. They’re obviously at a high level in terms of impact; I think there’s less impact from other designers—certainly the higher the market.”(William)

“특히 일본은 그들의 문화적 유산과 문화적 정체성을 정확히 가지고 세계화된 전망을 가지고 부유함(wealth)을 개척했다.—그들 자신을 나타낸 것이다. 한편 중국 디자이너들도 파리에 한 부분 위치해있다. 한 명의 한국인도 있다. 신세대 디자이너로 기억한다. 중국의 영향은 거대한 것이다. 특히 소재와 색상, 자수, 모든 면에서 거대한 영향을 하이 스트리트에 끼치고 있다.

I suppose Japan is one we all know and would say is about fashion, because they’ve taken their heritage and their cultural identity, and exploited all that richness, but made it in a global perspective—they marked themselves. They’ve gone into Paris and marked themselves. There are some Chinese designers that are now part of Paris. I think there is one Korean. Last season everything in the high-street was Chinese—a huge influence. First through fabrics and color, then embroidery, it’s everything.”(Jane)

한편 동양풍 패션의 유행이 민속적 이국적 취향뿐 아니라 일본이 중심이 되는 기술적 발달의 우위를 달리는 아시아 국가들에 의한 것으로도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을 통해 극동지역 아시아 국가들의 고급 기술적 능력을 강조한 경우도 있었다.

“I suppose there are two sides to it really. One is the traditional, which comes from the very sort of traditional approach, maybe as an oriental style, one tends to link it through with Chinese more than anything else and maybe Japanese. But I think that there are also the huge technological developments that have happened and again one world relate that to Japan ... I think the Orient has a huge amount of impact” (Robert)

동양풍 패션의 대표적 디자이너에 대해서는 13명 모두가 이세이 미야케, 요지 야마모토, 가와쿠보 레이 등 대표 3명의 일본디자이너를 첫 번째로 말했고 이밖에 겐조, 비비안 탱, 존 갈리아노를 함께 응답한 경우

가 2명이 있었다. Susan은 '존 갈리아노의 중국적 취향의 컬렉션을 일부 언론지에는 일본풍이라고 잘못 표현되는 예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모두 (동양적 = 일본적)이라는 동급관계에서 발생된 의한 착오'라 하였다.

결국 동양풍 패션의 대표적 국가와 대표적 디자이너에 대한 인식은 모두 일본이 확고히 자리잡고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었으며 응답의 내용을 통해 한국, 일본, 중국 등의 극동지역 국가들의 기술적 수준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동양풍 = 일본 스타일'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다.

3) 동양풍 패션의 이미지 평가와 동서양 패션 디자인의 차이에 대한 인식

전문가 그룹이 인식하고 있는 동양풍 패션의 이미지는 어떠한지 질문한 결과 응답자들의 의견은 크게 두 가지 경향으로 대별됨을 알 수 있었다. 우선, 일본 스타일에서 나타나는 아방가르드 나 젠 스타일을 동양풍 패션의 이미지로 꼽는 그룹(7명)과 중국풍을 생각하고 설명한 그룹(3명)이었다. 그러나 두 그룹의 이미지를 분류하고 각 이미지별로 정리하고 각각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응답자(3명)도 있었다. 면접대상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이미지로는 '순수함', '단순함', '우아함', '부유함', '력서리함', '신비함', '철학적인' 등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graceful, exotic, subtle, strong"(Hellen)

"traditional"(David)

"more about wrapping the body with cloth"
(Sally)

한편 이제는 동양풍이니 서양풍이니 하는 것은 현재의 패션 세계화 경향에서 볼 때 큰 의미를 갖지 않는 다지만 일본 디자이너들의 작품에서 요지 야마모토나 미야케, 콤 데 가르송 등은 좀 더 심오한 근거로 작업하고 있다고 느껴지며 좀 더 철학적인 일들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Sally)고 인식하고 있었다.

동서양 패션디자인의 차이에 대한 인식에서는 먼저 재단의 차이에 따른 특성을 지적한 경우가 많았다. '평면 커팅', '다양한 커팅'을 통한 '혁신적', '창의적', '이성적' 등의 의견과 신체와 관련해서는 '루즈함', '신체와 의복과의 공간성 확보', '모노크롬', '드

레이프', '릴렉스'와 함께 '장식적', '화려함', '색채, 소재의 다양성' 등을 들었다.

"If I would look at the history about Western clothing, it's all about the fit-tailoring, corset, things which are close to the body and much more engineered."(Jane)

"My looking at the East would be much more function, because the cutting's a lot more different: it is about using the whole piece of cloth. It's about things which are draped, and are relaxed-still about embellishment, still about beauty, but away from the body as opposed to with the body and restricting the body."(Jane)

"I would say the main difference is the geometric cut of most Eastern garments"(Helen)

"I think oriental traditional dress with exotic silks and quite a lot quite close fitting and the colours and fabrics. The Kimono shape is a part of the library of shapes ... Mao suits, blue simple suits ..." (Jeanny)

"... femininity, more gentle, more subtle, more consistent, more charming ..." (Eve)

"the geometric cut of most Eastern Garment"
(Helen)

"... innovative, very creative, fabric manipulation, sculptural ..." (Amy)

"... One is Japanese and Zen style ... calm, pure, simple, minimalism, monochrome, very spiritual ... the other thing is bright colours, lots more pattern, very bold contrasting, proportion, embroidery, print, gold" (Susan)

"... pattern and colours, luxurious, unique weave, pure, loose, innovative, flashier ..." (Cathy)

동양풍 패션과 서양 패션의 근본적 차이는 '신체에 대한 인식의 차이'라고 지적하고 동양풍 패션의 경우 더욱 철학적이며 철학적 사고는 신체와 의복 사이의 공간에 나타나며 의복 자체보다는 의복의 이면(裏面)에 있는 의미의 차이, 사상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인식하기도 하였다.

"... As I feel, we often look at the way Eastern and European look at female form, we often look at the main differences, if you were looking at Western designers, there's different cut to the

body, they really accentuate the female form plus if you look at a lot of the Japanese designs and a lot of Oriental costume, its moving space between the body and the garment, the fabric and the way. I think it's got the difference there. Obviously the thoughts behind the design if you're looking at fashion design between the East and West, I think its very different as well, a lot of the Eastern designers look at Western designers for influence, but they're more philosophical, and may be approach design, maybe there's more depth and meaning in the work, whereas in the West its maybe a bit more superficial.”(Margaret)

그 밖에 ‘독특한, 특별한, 역사적인, 보수적인(unique, special, maybe historical, conservative)’ 등의 형용사로 설명하거나 일본 문화의 뚜렷한 특성이나, 사고의 차이, 새로운 기술력, 강한 전통성이 현대에 새롭게 표현된다고 지적(William)하기도 하였다.

또한 영국에서 테일러링을 중요시 여기는 것과 같이 동양풍 패션의 이미지에 대해서는 자국의 문화적 정체성이 많이 느껴진다고 응답을 하였다. 그러나 현대 패션 이미지를 만든다는 것은 패션이란 상태로 그 문화

적 이미지를 맞추어 고쳐 놓아야하는 작업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분명 각 나라마다 같은 패션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의 패션은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 Robert는 중요한 것은 다른 나라들을 생각할 때 다른 색상, 다른 질감의 감각으로 나와야한다는 것이며 이렇게 될 때 패션은 매우 다양해 질 수 있을 것으로 조언을 하기도 하였다.

이상의 질문과 응답결과를 정리해보면 <표 5>와 같다.

3. 한국의 국가 이미지와 한국패션에 대한 사전 정보나 인식에 대한 평가

“한국이란 나라를 떠올리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나?”는 질문은 한국을 방문했던 경험이 있는 응답자와 그렇지 않은 응답자 간에 차이를 보였다. 한국 방문 경험이 없었던 응답자 11명 중 9명은 특별히 떠오르는 것이 없다고 답하거나 ‘no’라고 대답하여 떠오르는 이미지는 거의 전무한 상태였다. ‘no’라고 응답한 이들 중 3명은 조심스럽게 북한과의 정치적 불안감을 언급하기도 하는 등 오히려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표 5> 동양풍 패션 디자인에 대한 인식

대표적인 국가와 디자이너 (중복답변)	동양 패션 이미지	동양 패션과 서양 패션의 차이점	
		동양	서양
<국가> 일본(13명), 중국(2명), 인도(1명), 한국(1명). <디자이너> 이세이 미야케(13명), 요지야마모토(13명), 가와쿠보레이(13명), 겐조(2명), 비비안 텡(2명), 존 갈리아노(2명)	graceful, exotic, subtle, strong, more about wrapping, cutting's a lot more different, drape, relaxed, more embellishment, still about beauty, away from the body, cultural identity, femininity, more gentle, more consistent, more charming, colourful, geometric cut, innovative, very creative, fabric manipulation, sculptural, calm, pure, minimalism, monochrome, lots of more pattern, very bold contrasting, proportion variation, embroidery, print, gold, luxurious, unique weave, loose, flasher, superficial, more depth, as a piece of art, technology, special, historical, conservative, richness	이국적, 기하학적 커팅, 대담함, 신비함, 정신적 이미지 강함, 철학적, 창의적, 소재 변화, 여유 (moving space), 정적인 미, 순수함, 깊이 있음, 젠 스타일의 일본풍과 색채가 화려한 중국풍으로 나뉨	서양-입체적, 피트성, 테일러링, 코르셋, 타이즈, 신체의식 가장 큰 차이는 패션 디자인 뒤에 숨어 있는 사고(thoughts)의 차이임

있었다. 한국방문 경험이 없는 11명의 응답자 중 1명은 오랜 시간 생각을 하다가 월드컵을 떠올렸고 1명은 자신이 지도했던 한국유학생이 생각난다고 대답하여 특별히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리지 못한 반면에 한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2명은 비교적 한국문화에 좋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하였다.

“패션제조업체들의 기술적 우수성을 알고 있으며 전통 문화에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Ellen)

그 중 방문 회수가 5회인 David는 일본과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거리문화와 젊은 세대들에 대한 인상을 말하였다.

“일본처럼 자세히 알지는 못하나 한국을 방문했을 때 느꼈던 경험은 거리 패션이 매우 세련(quite sophisticated)되어 보였으나 보수적(conservative)으로 느꼈습니다. 한국의 젊은 세대들에서 일본의 거리 문화를 느꼈고 스마트(smart)해 보였다. 그러나 한국학생이 디자인한 것은 마치 무대의상(theatrical costume)처럼 보였던 것이 기억납니다. 한국인들은 자신의 문화에 매우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David)

한국을 방문한 경험자 2명은 매우 긍정적이고 자세히 한국에 대해 이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반면 전혀 그러한 기회가 없었던 11명은 대부분은 한국의 국가 이미지에 대해 거의 전무한 상태였고 그중 3명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한국 패션에 대한 사전 정보나 인식에 대한 응

답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 패션디자이너를 본적이 있거나 알고 있는 디자이너가 있는지?” 질문하였다. 그리고 “있다면 어디서 보았는지? 가령 컬렉션, 마켓, 정보지?” 질문하였다. 10명이 “no”라고 대답하여 한국 패션에 대한 사전 인식은 거의 전무하였다. 단지 3명은 가능한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려 하였지만 디자이너나 브랜드의 이름 명확히 기억해 내지 못하였다. 부정적 응답자 중 한국방문 경험이 있고 한국의 제조기술력을 잘 알고 있는 Eve는 ‘한국이 세계적인 이름의 디자이너나 브랜드가 없다는 점이 매우 아쉽다’ 고 하였다.

“I haven't seen any Korean spotlight shows. The Turks do it and the Chinese do it. I think even the south Americans have don't it recently, there's been Peru and South Africa. I haven't heard there being any public relations for anyone over to become aware of Korean fashion though I think it would be a good idea”(Eve)

따라서 한국 패션을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사전 인식에 대한 질문에서는 한국의 패션계의 지명도가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한국 디자이너들 중 한 명의 이름도 기억해내지 못했으며 브랜드도 아는 것이 없었던 것은 조사 응답자들의 무관심도 있었겠지만 그 만큼 우리가 해외진출을 위해 노력했던 것들이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6).

<표 6> 한국의 국가 이미지와 한국 패션에 대한 사전 정보나 인식

질문내용	응답내용	
	한국방문 무경험자(11명)	한국방문 경험자(2명)
한국의 국가 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떠오르는 것이 없다(9명) → 북한과의 정치적 불안감(9명중 3명) · 자신이 지도하는 한국유학생(1명) · 월드컵(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전통문화 및 패션제조업체들의 기술력(1명) · 젊은이들의 거리문화(1명)
한국패션 디자인에 대한 사전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패션 디자이너를 본 적이 없음(10명) · 백화점에서 본 적이 있는데 디자이너 이름이나 브랜드는 생각나지 않음(1명) · 잡지에서 컬렉션 사진을 본적이 있으나 자세히 기억나지 않음(1명) · 한국방문시 거리패션을 보았음(1명) 	

4. 한국적 패션 디자인에 대한 평가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작품 75장의 시각자극물을 응답자에게 제시하고 충분히 볼 수 있게 한 후 전체적인 이미지와 세부적 디자인 특성으로 나누어 질문하고 가장 선호하는 디자인을 복수로 지적하게 하였다. 또한 한국적 패션디자인 중 동일 이미지로 구분되는 자극물들을 지적하게 하였다.

시각 자극물 제시 전에 한국의 국가 이미지에 있어 정치적 불안감을 지적하고 사전에 한국 패션 디자인에 대해 별로 아는 것이 없었던 Susan은 흥미롭게 작품들을 보고 매우 긍정적 평가를 하였다.

“확실히 동양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그런데 의심할 여지없이 중국풍도 아니고 일본풍도 아닌 것 같다. 뭔가 꽤 부드러우면서도 미니멀하고 ... 매우 둥근 느낌이고, 곡선적이고 날카롭지 않은 느낌이고 ... 좀 더 페미닌한 이미지입니다 ...”(Susan)

한국 방문 경험이 있는 David는 ‘제시된 한국적 패션디자인 중 과잉장식적 표현으로 인해 산업적, 기능적 측면에 약간의 부정적 느낌을 갖는다’고 말하였고 ‘몇몇의 작품을 통해서 현대적이고 단순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고 응답했다.

“몇몇 작품들의 심플리시티는 마음에 든다. 현대여성들이 입을 수 있는 옷처럼 보인다. 심플한 영감이 더욱 많이 사용될 때 입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 디자이너들의 많은 작품들이 꽤 다양한 서로 다른 것들을 함께 작업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매우 많은 무늬와 너무 많은 장식들이 눈에 띈다. 이러한 과잉장식도 하나의 한국적 특성으로 보인다. 소재는 러프해 보이고 ...”(David)

Merry와 Jane은 매우 진지하고 관심 깊게 살펴보고는 ‘기하학적이고 레이어링의 표현이 흥미롭다’고 하였다. 역시 이브닝 웨어나 아트성이 강한 느낌이어서 ‘현대 여성의 시각적 정체성을 확립하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조심히 말했다. Jeanny는 화려하고 예쁜 색들을 지적하면서 ‘아름다운 동양적인 색채이지만 서구에는 맞지 않는 색’이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I find this do stimulated and beautiful but it's an eastern beauty and that's perfect, but it would have the appeal but it wouldn't suit western

people ... So its fit for purpose, its right for its own cultural reference.”(Jeanny)

Amy는 ‘한국적 이미지의 작품을 전통복이 강한 것과 편안하고 매우 헐렁한 것, 서구적인 것과 유사하여 신체를 꼭 드러내고 섹시한 모습으로 저녁 데이트에 나갈 때 입는 부류로 느껴진다’고 말하였다. 유명 쿠티어의 자수 전문가로 일을 했던 Amy는 특히 장식적 스티치에 관심을 보였다. 가죽위에 스티치를 한 작품을 매우 좋게 평했으며 디테일과 매우 작은 귀중한 오브제의 사용에 주목할 수 있도록 전체적 디자인 발란스를 부여하여 전체적 실루엣과 함께 조화롭다고 평가를 하기도 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아마 전통복에서 나온 것 일거라고 긍정적 추측을 하기도 했다. 뭔가 편안하고 매우 헐렁한 요소들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Well to me, obviously there are three different designers work ... Some of these are much more western—much more figure hugging, and much more a going out evening look. A little bit more fun, a little bit sexier ... the look is very western but the design and embroidery are still eastern ... One thing that does strike me is the layering ... does that go back to traditional form? ... Contemporary designers use the same methods of tying and wrapping ... but in a different context ... There's a very nice sense of movement through the clothes ... There's an interesting balance also with attention to detail and small very precious object, to go with the whole silhouette and the whole look. I can still see ideas from the traditional: something that's comfortable and quite loose, but it allows for moment, but its still element of fit ... This is more casual and for the younger generation ... I agree with the younger look, more experimental, again still very layered, interesting edging ... Still the idea of things tying together ... and simpler shoes. Older, a little bit more sophisticated ... glamorous look ... strong colors”(Amy) ...

대중들을 위해 일반화되기에는 좀 곤란하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Amy에게는 좀더 부드러운 이미지의 젊은 스타일이 마음에 든다고 하고 그것이 더 일반적인 어필을 줄 수 있고 더 정성스런 상태이라고 하였다.

"Softer piece is more successful to me-it has more general appeal, and more an elaborate statement"(Amy)

Sally는 한국 패션 디자이너들의 작품에 대한 첫 느낌이 자신이 가르쳤던 '한국학생들의 작품과 매우 유사하다'고 하면서 '3차원적 구조의 이해가 빠르고 복잡한 구조로 작업을 하는 특성이 있다'고 하였다.

"I do think from looking at my students' work, there's a great deal of the real ability to perceive in three dimensions and work with complex constructions I've noticed."(Sally)

'전통적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작품과 좀 더 현대적인 작품들로 크게 구분이 된다'고 Sally는 말했다. '전통적 요소들은 학생들의 작품에서 많이 두드러졌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브닝 웨어나 가운 형태의 것들을 표현하는데 있어 한국 전통복식의 형태를 많이 활용한 것'으로 기억하며 제시된 자극물에서도 그러한 디자인들이 보인다고 응답했다.

한편 소재의 변화(textile fabrication)가 매우 강하고 자수의 이용이 많고 장식적인 것들의 경우는 이브닝 웨어 처럼 보인다 하였다. 퀼팅, 장식자수, 드레이프 되는 형태는 분명 전통복에 기인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Sally는 '이전에 한국 전통복식을 보았던 적은 없었지만 추측할 수 있겠다'고 하였다. '너무 전통적 패션이 되도록 애쓰는 움직임이 보이지만 너무 스타일리시하여 좋은 이미지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상업적인 상품으로서의 작품들의 경우에도 역시 많은 부분이 랩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보았다.

"... more to do with traditional consume and I think that some of the others are looking more contemporary fashion. Some look very highly styled, the idea of lots of cloth and textiles fabrication is also very strong and there's quite a lot of embroidery, so decorative evening wear, but this is presumably very traditional ... I think its certainly grounded in the quilting decorative embroidery and this sort of cross over and drape come through quite strongly which is probably from traditional costume, and some are more seem more like catwalk pieces and evening wear

rather than day wear. ... These seem to me more moving more into trying to be more traditional fashion, but it is so styled that they make very good images ... Some seem to be more commercial, though there's still quite a lot of wrapping. In terms of fashion and imagery and styling, the collection works stronest. But its quite clearly based in a non western tradition but it bring that a lot of western designers would always appropriates, costume design from different cultures ..." (Sally)

13명의 전문가들이 한국적 패션디자이너가 주는 느낌을 표현한 단어로는 전통적인(traditional), 장식적인(decorative), 표면이 흥미로운(surface is interesting), 풍부한(opulent), 흥미로운 재단(interesting cutting), 다양한 색채감(colorful), 헐렁한(loose), 겹쳐지는(layering), 소재가 정교한(fabric is more elaborate), 자수(embroidery), 프린트(print), 트림(trim), 가장자리(borders), 묶는 아이디어(옷고름과 같은, tying idea), 감싸는(wrapping idea), 몽골 룩(mongol look), 조각 보(patchwork), 빈티지(vintage), 레트로(retro feel), 신체와 의복의 분리(separating the body idea similar with very 1930's look in france), 짧은 상의(저고리, short jacket), 긴치마(long skirt), 움직임의 여유가 많은(lots of movement), 문양의 복잡함(lots of pattern), 너무 복잡함(too complicated), 볼품없는(clumsy), 모험적인(adventurous), 과잉장식적(lots of decoration, a lot of embellishment), 전통 기법의 과다 사용(a lot of traditional techniques), 흥미로운 가장자리 표현(interesting the edges), 고급스러워 보이는 작은 디테일(precious and tiny detail), 이지 캐주얼(easy casual), 스타일리시(stylish), 심플리시티(simplicity), 소프트(soft), 페미닌(feminie) 등으로 지적하였다. 특히 11명은 한국적 심플리시티가 마음에 든다고 지적하였고 응답하였다.

5. 한국적 패션 디자인의 분류와 선호 이미지 결과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이미지와 디자인에 대한 인식

<표 7> 면접 대상자들이 인식하는 한국적 패션 디자인에 대한 이미지 유형과 특성

단위: 명(%)

이미지 분류	이미지 언어	디자인 특성	한국적 특성의 활용	선호도 (복수선택)	대표적 디자인
I	어덜트 섹시 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의 곡선이 드러나는 입체적 서구풍의 재단. · 글래머스하고 섹시한 느낌이지만 자수나 문양은 한국적인 문양과 자수를 직접 인용한 경우 · 소재는 광택 나는 것. · 바지스타일이나 피트된 스커트. 	<p>표면 장식에 전통 문양의 자수 처리, 화려한 원색의 강한 색채 보색대비 등</p>	0	
II	어덜트 에스닉 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적으로 전통의복을 차용 · 민속복적 요소가 강함. · 한복의 형태, 치마 저고리, 조끼 	<p>형태의 활용. 저고리의 베레, 당의 형태, 조끼, 포, 바지나 버선형태 활용</p>	0	
III	어덜트 내추럴 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주의적 이미지가 풍기는 실루엣과 질감, 텍스처의 다양한 변화. · 불규칙 주름, 조각보의 이미지 · 형태는 비구축적이나 서구적 드레이프된 커팅 그룹 	<p>조각보나 비치는 결의미를 활용, 비대칭적 두르기 활용</p>	3	
IV	영 아방가르드 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체적 서구형 재단 · 스타일링은 젊은 아방가르드 이미지로 표현 · 울이 풀린 자연스런 마무리나 레이어링을 통해 과감한 젊은 취향 표현 · 소품은 한국적 전통 장신구를 도입하여 다소 절충적인 느낌을 고려 	<p>소품이나 장신구에 젊은 감각의 전통 소품(골무, 화관, 토시 등)을 활용하고 색채는 파스텔과 브라이트 톤으로 즐겁고 밝게 표현</p>	10	
V	영 심플 캐주얼 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 스타일, 평면 커팅, · 신체의 곡선이 잘 드러나지 않음 · 직선실루엣 · 이지 캐주얼적 분위기 · 단화착용과 같은 젊은 스트리트적 감성을 연출 · 한국적 프로포션을 응용한 심플디자인 · 색채는 요란하지 않은 화이트 계열, 오프 화이트 중심의 깔끔한 이미지 	<p>짧은 상의와 하의의 프로포션을 해체적 디자인에 응용, 단아한 아름다움을 캐주얼로 응용 소재 색채의 단순성, 장식을 절제</p>	13	

평가를 인터뷰 하면서 한국적 패션의 특성에 따라 이미 지 분류가 될 수 있었다. 인터뷰 대상자들이 서로 다른 혹은 유사한 이미지들의 사진 자료를 지적하였고 지적 한 결과를 종합 정리 해보면 크게 5가지의 이미지 유형 이 나누어졌다. 성숙한 서구풍의 어덜트 섹시 이미지, 어덜트 에스닉 이미지, 어덜트 내추럴 이미지, 일본적 스타일링이 가미된 영 아방가르드 이미지, 그리고 영 심플 캐주얼 이미지로의 한국적 패션 디자인이었다(표 7). 이미지 유형에 따른 명칭은 면접 대상자들이 이미 지 그룹을 나누면서 사용한 용어들 중에 반복적으로 사 용된 단어들을 연구자와 평가단의 의견을 고려하여 정 하였다.

각 이미지에 대한 선호 결과에서는 섹시한 서구풍의 어덜트 이미지에 전통적 표면장식, 화려한 원색의 색 채 조화와 번쩍이는 광택을 활용한 이미지 I 그룹은 아무도 선호하지 않았다. 이는 서구인들의 시각에서 볼 때 신선함이 없고 서구에서 진행되어 온 디자인과 의 차별성도 크게 나타나지 않으며 단지 한국적 문양 을 표면에 과잉장식을 함으로써 그다지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 그룹을 볼 때 응답 자 중 몇 명은 '불품없다' '맘에 들지 않는다' '싫다' 등의 직접적인 표현을 하기도 하였다.

II 그룹은 어덜트 에스닉 이미지 그룹으로 민속복의 개념으로 인식하여 현대 패션의 상업적 시각에는 잘 맞지 않고 단순한 이국취미로 특별한 날이나 이브닝 웨어 정도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함을 알 수 있었다. 에스닉에 대한 유행이 이전 매우 진부하게 느 끼고 있어 역시 선호하는 응답자는 아무도 없었다.

III 그룹은 어덜트 자연주의 이미지로서 편안한 실 루엣과 자연염색을 중심으로 고유한 전통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그룹이었다. 응답자 3명이 흥미 있고 좋다고 평하였다.

IV 그룹은 영 아방가르드 이미지로서 10명이 좋아 한다고 지적했는데 일본풍적인 감각과 가벼움과 아기 자기한 스타일링에 만족한다고 하였다.

V 그룹은 인터뷰 대상자 13명이 모두 좋다고 지적 한 그룹으로 영 심플 캐주얼 이미지로 이지 캐주얼에 몸과 의복 간에 약간의 공간이 여유 있으며 색채는 밝 지만 진하지 않고 가벼운 느낌이고 섬세한 디테일이 있는 디자인이었다. 이 중 몇 작품은 전통적 프로포션 을 현대 아이템에 적용한 것으로 응답자 대부분이 많 은 관심을 가졌다. 가령 귀여운 원피스 스타일이지만 직선적인 커팅이고 하이웨이스트 부분을 직선으로 재 단하여 신선한 느낌을 주거나 헐렁한 오프 화이트 색 채의 긴 자켓은 평면 커팅을 해서 헐렁하지만 드라마 틱한 분위기보다는 발랄한 이미지를 주는 가벼운 터치 를 하고 단화로 매치시키는 등 영 캐주얼의 이미지였 다. 또는 겹겹이 비치는 얇은 소재의 겹을 이용한 티 셔츠도 있었다. 이 그룹은 단아하고 심플한 느낌이지 만 일본적 심플리티와는 다른 영 페미닌한 이미지로 볼 수 있었다.

6. 한국, 중국, 일본 패션 디자인 비교

한국적 패션 디자인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그렇다면 아시아 대표 3국인 한국, 일본, 중국의 패션 디자인을

〈표 8〉 영국 패션 전문가들이 인식하는 아시아 3국의 패션 특성

한국	중국	일본
평면 재단의 경우: 영 캐주얼, 약간의 여유, 일본과는 다른 심플리티(단아함), 비대칭적 특이한 프로포션, 깔끔한 색채, 부드러움, 어린 페미닌 스타일, 단화 착용시 스타일링이 좋음 서구적 입체 재단의 경우 : 과잉장식, 화려한 색채, 자수, 복잡함, 섹시한 성숙미	청삼, 마오 자켓, 전통적 파란색, 차이나 칼라, 신체를 의식한 재단, 서구적 피팅, 섹시미, 비대칭적, 자수, 긴 슬릿의 스커트	기하학적 패턴, 평면 재단, 무채색 톤, 신체와 공간의 여유가 매우 큼, 예술적, 실험적, 강한 이미지, 소재변화의 기술적 우위, 스트리트 감각, 아방가르드

구별하여 그 특성을 말할 수 있는지 질문하였다. 아직은 정확히 비교하기 곤란하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5명이었고 약간의 비교를 포함하여 비교가 가능하다고 말한 8명의 응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8).

이밖에 한국 패션디자인 산업의 발전을 위한 견해에서는 한국적 정체성을 알리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앞장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마케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많은 한국 유학생들이 외국학교에서 졸업 후에 대개 귀국하는 현실이 한국 패션 산업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도 하였다. 그리고 국가의 이미지가 디자인 산업의 가치를 척도 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특히 Susan은 최근 일본, 프랑스, 영국 디자이너들이 서로 디자인을 카피하는 현상이 많아지고 있어 서로간의 정체감의 혼란이 오는 시기로 보면서 한국은 이들과는 다른 한국적 감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Jeanny는 한국이 글로벌 브랜드 육성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한 나라의 글로벌 브랜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미국, 이태리, 일본 등의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한국은 세계적 지위를 갖기 위해 매우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V. 요약 및 결론

패션디자인 산업은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산학연이 함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동안 학문분야에서는 이미 전통 복식의 활용에 대한 다각적 연구가 시도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패션디자인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여 한국적 패션디자인에 대한 인식평가를 시도하였다. 한국적 이미지가 표현된 국내 디자이너 25명의 작품 75점을 시각 자극물로 구성하여 일대일 심층면접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양풍 패션이 최근의 중요한 패션 트렌드의 하나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13명중 12명이 그렇다고 응답하여 대부분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고 동양권이 패션계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였다. 또한 동양풍의 대표 국가로 인식하는 나

라로는 13명 모두가 일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대표 디자이너 역시 모두가 일본 디자이너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국 현재 영국 패션전문가들이 인식하는 동양풍 패션이란 일본풍이 지배적이며 소수 인식으로 중국풍, 인도풍이 있었다.

한편 응답 대상 전문가들 중에는 동양풍이란 용어의 사용 즉, '오리엔탈리즘'이 서구권과 다른 식민지 대상국의 의미로서 과거에 만들어진 용어임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기에는 이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학문적으로 시도되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었다. 또한 동양적 패션의 범주에 있어 이미 30년 이상 세계 패션의 중심에서 활약한 일본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함을 볼 때 국내의 학문적 영역에서 사용되는 동양풍이란 용어의 사용에 있어 보다 주체적인 시각이 필요함으로 알 수 있었다.

동양풍 패션 디자인의 특성에 대해서는 기하학적, 대담함, 평면적 재단, 신비함, 철학인적, 심오함, 소재 변화의 기술 발달, 순수함, 정적인 미 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한국의 국가 이미지에 대해서는 9명이 특성 없는 나라로 인식하고 있었고 그 중 한반도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부정적 이미지(3명)가 있었다. 다만 한국 방문의 경험이 있었던 2명은 긍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정부차원의 국가 이미지 쇄신 정책의 노력과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논의와 연구를 통해 패션산업 뿐 아니라 모든 디자인 산업으로의 변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이와 함께 패션 산업계에서는 해외 바이어, 전문가 등을 국내의 행사에 많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기획과정에서 그리고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 패션 디자인을 본 적이 있는지 기억나는 한국 디자이너가 있는지에 대한 사전 인식 조사에서는 10명이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단지 한국 방문시에 스트리트 패션을 경험한 적이 있거나 유럽의 마켓에서 보았던 기억은 있지만 자세히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아 한국 패션 디자인에 대해서는 아직 낮은 수준의 사전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글로벌 브랜드의 육성과 재능 있는 유망한 디자이너에 대

한 국가차원의 홍보 정책은 조직적이고 꾸준히 이루어져 해외 전문가와 마켓에 전달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시각 자극물을 제시한 후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느낌에 대한 질문에서는 대부분 매우 혼란스럽고 다양하다는 응답을 하였다. 그러나 응답의 경향을 분석해 보면 크게 두 가지의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하나가 민속복적 디자인의 과다 활용에 의한 과잉장식의 이미지이며 다른 하나는 일본의 단순성과는 다른 깨끗하고 정갈한 느낌이라 할 수 있다. 전체적 이미지에 대해서는 전통적, 장식적, 풍부함, 독특한 평면 재단, 새로운 프로포션의 변화, 혈령함, 레이어링, 정교한, 자연미, 단순미, 복잡한, 모험적인, 기법의 과다사용, 편안함, 스타일리시, 부드러움, 페미닌, 젊은 이미지, 성숙한 섹시미 등이었다. 결국 한가지의 이미지 방향성을 주지 못하고 다양한 느낌들이 혼재되어진 느낌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25명이라는 적지 않은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함께 제시하여 디자이너마다의 독특한 개성이 서로 섞여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기도 하지만 패션 분야에 있어 한국적 이미지에 대한 방향성의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상기될 수 있다.

영국 패션 전문가들이 느끼는 이미지들을 유형화해 보면 어덜트 섹시 이미지, 어덜트 에스닉 이미지, 어덜트 자연주의 이미지, 영 아방가르드 이미지, 영 심플 캐주얼 이미지의 5가지 이미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었다.

이들이 어떤 이미지 그룹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질문의 응답 결과는 어덜트 섹시 이미지와 어덜트 에스닉 이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그룹은 모두 서구적 입체적 재단을 강조하고 화려한 장식성이 강조되었으며 원색의 사용과 소재의 표면광택 등이 표현된 그룹이었다. 영국 패션전문가들이 기대하는 동양적 이미지인 신선함과 새로움에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디자인이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지와 같은 기준을 갖고 있는 이들의 현실적 시각서 볼 때 과장된 강렬한 이미지는 마치 무대 디자인의 느낌을 부여하여 매력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어덜트 내추럴 이미지는 비판도 호감도 주지 못하는 특성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는 그동안 자연주의 트

렌드에 휩싸였던 세계의 패션계에서 이미 많이 보여졌기에 새로운 느낌을 잃어버렸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13명의 대상자 모두가 관심을 가진 것은 영 이미지의 두 그룹이었는데 영 아방가르드 이미지는 10명이 선호하였고 이들은 세련되고 도전적인 디자인 특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일본적 이미지와 유사한 특성이 있었다. 가장 매력 있게 선호된 이미지는 영 심플 캐주얼 이미지로 편안한 이지 캐주얼 디자인을 기본으로 하여 전통적 느낌을 세밀하게 간접적으로 표현한 작품들이었다. 무겁고 부담스런 한국전통의 요소를 단순 재현이나 병치시킨 것에서 벗어나 상업적인 면을 가장 잘 만족시킬 수 있는 그룹이었다.

영 심플 캐주얼 이미지는 한국 패션디자인의 정체성과 경쟁력의 가능성 중 하나로 볼 수 있었다. 형태적으로는 과잉장식이 철저히 배제된 단순한 디자인이며 색채적으로는 전통적 원색의 대비를 지양하고 부드럽고 가벼운 색조의 편안함을 부여했다. 동양의 강렬한 색상의 조화는 서구인들에게 아름답게 보이기는 하지만 자신들이 입기에는 취향이 다르다고 한 지적에서처럼 그들이 구매할 상품으로서 볼 때는 부드러운 중간톤과 오프 화이트 계열의 어둡지 않고 매우 자연스런 색상이 선호되었다. 특히 단순한 형태지만 내용적으로 단순한 외관적 형태 내에 흥미로운 프로포션의 변화를 많이 주목했으며 소재에 있어서는 비치는 재질의 가볍고 섬세한 소재를 선호하였다. 볼륨감이 없이 어느 정도 신체 가까이에 있지만 타이트 하지 않는 여유 있는 느낌의 스트리트적 작품들이었다. 현대 도시의 고급 이지 캐주얼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영 그룹으로 전체적으로 세퍼레이트들의 자연스런 조화감을 느낄 수 있는 그룹이었다. 결국 한국 전통미의 섬세함과 단아함과 무기교적 기교의 은근함이 나타나는 소프트 페미닌 심플리티의 모습이라 할 수 있었다.

따라서 패션 산업의 경쟁력 있는 현대화 작업의 가능성 중 하나로서 한국 전통적 아름다움의 세계화를 논의할 때 지적되어온 '무기교의 기교미'나 '단순 소박미'와 유사한 이미지가 현대 패션의 디자인 응용에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직접적인 전통적 형태의 차용이나 색상의 사용은 호감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앞서 연구된 선행 연구의 결

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심층면접의 과정 중에서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자극 물 제시 이전에 인식하고 있었던 한국에 대한 특성 없음과 부정적 이미지가 디자인 자극물을 본 후 긍정적이고 호감을 느끼는 방향으로 변화됨도 알 수 있어 우리의 경쟁력 있는 디자인을 충분히 알리지 못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영국 패션 전문가들이 비교 설명한 한국, 일본, 중국의 디자인 특성에서도 확실히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한국 패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 디자인산업의 방향에 고유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충분히 알리는 홍보나 마케팅 작업에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이며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해외 여러 곳에서 배우고 있는 우수한 인재들이 해외에서 충분히 현지 활동을 할 수 있는 정책도 마련되어 대부분 귀국하는 현재의 상황에 변화를 주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영국의 패션디자인 전문가라는 제한적 대상을 중심으로 진행하여 모든 해외 소비자나 해외 시장으로 확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쟁력을 발견하고 찾는 노력에 있어 직접 해외 전문가들을 만나 일대일 심층 면접을 하고 그 결과를 통해 한국적 패션 디자인의 경쟁력을 찾기 위한 시도는 의의가 있을 것이다. 또한 연구결과는 우리만의 아름다움을 세계화시킬 때 필요한 정체성에 대한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데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프랑스, 일본, 미국, 이태리 등의 패션 선진국의 해외 전문가들이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후속 연구들이 계속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1) 산업자원부 2004년도 섬유산업비전.
www. mocie.go.kr
- 2) 앞 글.
- 3) 정경원(2003). '집중기획/한국의 이미지'.
www. kcaf.or.kr, 2003. 10. 02.
- 4) 오현정, 오선희, 이귀례(2003). 문인화를 이용한 한국적 이미지의 문화상품용 의상디자인 개발. 복식, 53(5), pp13-22.
- 5) 김희정, 이경희(2000). 동양적 복식디자인의 특성과 이미지 연구-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의류학회지, 24(8), pp1001-1010.
- 6) 최경희, 엄준희, 김민자(2003). 한국적 이미지의 경기용 수영복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II)-오방색과 태극문을 중심으로-. 복식, 53(4), pp49-69.
- 7) 추선형, 김영인(2002). 패션소재의 색채 이미지와 질감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6(2), pp193-204.
- 8) 정경원(2003). 앞 글.
- 9) 앞 글.
- 10) Ann Marie Fiore & Patricia Ann Kimle. 1997. Understanding Aesthetics for the Merchandising & Design Professional. New York, Fairchild Publication, pp348-351.
- 11) 양현미(2000). 상대방의 기대를 배려하는 이미지 정책을 세워야. 2003.8.3 www.kcaf.or.kr
- 12) 최현수(2003). 우리문화 속 디자인 파워 : 전통의 재해석, 현대화. www.lg.co.kr, 2003. 10. 02.
- 13) 정경원(2003). 앞 글.
- 14) 김인경(1995).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특성에 관한 연구-198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 19(3), 538-540.
- 15) 앞 글.
- 16) 조규화(1997). 한국패션에 나타난 미의식. 패션비즈니스, 1(2), 1-19.
- 17) 금기숙(1999). 패션디자인을 위한 전통 복식의 활용 현황에 관한 연구. 복식 43, 69-81.
- 18) 박은주, 은영자(1999). 1990년대 패션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에 관한 연구, 복식 43, 259-282.
- 19) 앞 글.
- 20) Kyung-Seob Kim, Hye-Won Park. A Research on the Present of Korean Fashion Designers who Advanced to Paris an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Works. 2001.8.2-4. 19th International Costume Association Congress, pp124-125.

- 18) 공미선, 채금석(2004). 세계시장을 위한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개발. 복식, 54(2), 1-9.
 - 19) 앞 글. p.8
 - 20) 윤보연, 배수정(2001). 현대패션에 반영된 전통 미의식의 연구-한국과 일본의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패션비즈니스, 5(4), 56-72.
 - 21) 장수경(2002). 미국대학생이 인지하는 한국전통문양의 감성이미지, 한국의류학회, 26(3/4), 402-411.
 - 22) 최은경, 심화진 (2004). 한국 전통 복식이미지의 세계화를 위한 연구. 2004년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 춘계학술대회. 구두발표.
 - 23) Locker, S. 1993. Dress and the Dynamics of Culture : Implication for theory, methods and content. In Lennon, S.J. & Burns, . L. D. Aspect of Dress: New Directions. ITAA Special Publication # 5.
(재인용) 김현식. 2000. 의복과 문화적 접근 : 질적연구방법의 중요성. 의류학회지, 24(4), p513.
 - 24) 공미선. 채금석(2004). 앞 글. p.4.
-
- (2004년 2월 17일 접수, 2004년 4월 8일 채택)